이병헌 "난 겨울을 즐긴다"

스노보드 제트보트 등 타고놀며 뉴질랜드 퀸스타운서 꿀맛 휴식

빅히트작 '공동경비구역 JSA'(박찬욱 감독 명필름 제작)의 히어로 이병헌이 3~4개월 일찍 겨울을 맞았다. 이병헌은 최근 휴가차 일주일간 뉴질랜드 남섬 퀸스타운으로 가서 스노보드를 즐기며 남들보다 먼저 겨울을 즐겼다.

연예계의 유명한 스포츠광인 이병헌은 특히 최근 스노보드에 푹 빠져 있다. 퀸스타운에서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제트보트 등의 레포츠를 즐긴 그는 코로넷피크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로 휴가의 절정을 누렸다.

마침 그는 이달 말 새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김대승 감독 눈엔터테인먼트 제작)의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모저모로 이번 여행이 알찼다고 자평했다. 모

명배우 코믹연기 보다보니 어느새…

프리머니

말론 브랜도, 찰리 신, 소르비노등 호화 캐스팅 탄탄한 구성에 좌충우돌 폭소탄… 23일 개봉

언론과 소문으로 떠들썩한 블록버스터를 정작 관람하고 난 뒤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을 별 기대 없이 봤다가 크게 만족하는 때도 있다. 초호화배역에도 불구하고 별로 소문이 나지 않은 '프리 머니'가 바로 후자에 해당된다.

전설적인 명배우 말론 브랜도, 코믹스타 찰리 신, 섹시 퀸 미라 소르비노가 주연하고 찰리 신의 아버지 마틴 신이 카메오로 출연하는 '프리 머니'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명배우의 명연기가 주는 재미가 탄탄한 코믹액션영화다.

고집불통이며 인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지방교도소장 소렌슨은 고교생인 쌍둥이 딸을 동시에 임신시킨 건달 버드와 래리를 어쩔 수 없이 사위로 맞아들인다. 그러나 소렌슨은 그들을 학대하며 쫓아낼 기회를 노린다. 버드와 래리도 무자비한 장인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TV에서 본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힌트를 얻어 현금수송열차를 털어 도피자금을 마련한다. 그런데 미모의 FBI 요원 폴라스키가 이 도시에 파견되면서 일은 실타래처럼 엉켜간다.

주연배우들은 대배우 그레고리 펙의 아들 앤서니 펙이 쓴 시나리오에 반해 그들의 몸값에 턱없이 모자란 출연료에도 흔쾌히 촬영에 임했고 대배우 마틴 신은 카메오 출연을 자청했다. 브랜도의 놀라운 변신, 마틴 신의 전매특허인 코믹연기에 빠져 웃다가 손에 땀을 쥐다보면 90분이 금세 지나간다. 23일 개봉.

탄탄한 구성의 코믹액션극 '프리 머니'.

유진모기자 ybacchus@sportsseoul.com

'새 천년을 빛낼 여성 로커' 서문탁(22·사진)의 2집 음반이 순항 중이다.

'성전환 논란' 속에 2집 음반을 출시한 서문탁은 '여성 록가수는 대중성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20만장의 음반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로커로서는 대단한 기록이다. 특히 조성모와 서태지, 두 슈퍼스타의 승부 와중에서 일군 성과여서 더욱 뜻깊다. 2년째 징크스를 깼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2집에서도 서문탁은 여자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핵파워를 보였다. 여기에 뮤지션으로서의 끼도 보였다. 끈적끈적한 블루스록에서 기

성모 - 태지 톱스타 틈새 공략 2집 20만장 음반판매고 순항

계음과 보이스를 적절히 조화시켜 놓은 사이키델릭록,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에 치중한 모던록, 그리고 전형적인 록발라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의 록음악을 고루 실었다.

타이틀곡 '사슬'(이영준 작사 박세준 작곡)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록발라드곡으로 도입부의 가느다란 떨림에서부터 후렴부에서 내뿜는 절정의 고음까지 서문탁의 강한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또 '시찌프스'와 '거침 없는 사랑'은 서문탁의 강한 목소리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록곡이고 '혼자가는 여행'은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일품인 일본풍 록음악이다. 2집에서는 철저히 대중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서문탁.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황용희기자 hee@ sportsseoul.com

편집 이근화기자 lgh1004@sportsseoul.com

'배니싱 트윈'에서 전라를 공개하고 상대역 구필우와 적나라한 베드신을 펼친 지수원(밑).

지수원 "드디어 벗었다"

노출 기피증 깨고 '배니싱 트윈'서 전라 베드신

노출을 극도로 기피하는 여배우 지수원(31)이 알몸을 드러냈다. 지수원이 영화 '배니싱 트윈'에서 상대역 구필우와 적나라한 베드신을 펼치며 몸매를 공개했다.

6년간 속살을 감춰왔다가 이번에 보여준 그의 몸매는 30대 초반 여인의 무르익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했다는 게 시사회를 관람한 관객들의 평. 지수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업적 논리 때문에 벗는 것은 반대했다"며 "그러나 이 작품 마지막에서 상대남자와의 격렬한 정사는 영화의 표현상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배니싱 트윈'은 30일 개봉된다.

유진모기자